

# 풍부한 자원, 국민의 인내성 잠재력등 바탕

## 시베리아 원동지역의 중심도시 'Khabarovsk'

올해 4월 19일, 여느 여행때와는 달리 다소의 흥분과 많은 호기심을 갖고 소련 원동지역의 중심도시인 Khabarovsk에서 열렸던 원자력의 안전과 홍보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키 위하여 Niigata에서 Aeroflot 항공편으로 갈아타고 당일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서울에서 직행하지 못하고 우회비행이었지만 4시간 남짓 걸렸다.

동서냉전의 와중에서 우리에게는 멀고 어둡게 여겨졌던 凍土의 넓은땅, 무진장한 자원개발에 손을 대지 못하고 버려졌던 땅, 그곳이 특히 근래의 소련의 Glasnost정책에 따라 우리에게는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자원개발참여에 남다른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러기에 이날도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일본방문에 이어 우리나라 제주도를 방문하여 상호협력관계를 논의한 것이다.

일행 3명(과기처 이순철 사무관, 원자력 연구소 한도희 박사)은 공항에서 회의주최측으로부터 정중한 명접을 받으면서 3대의 승용차에 나눠타고 숙소(교외의 안과병원2층, 전부가 Guest House로 쓰여지고 있음)로 안내되었다.

다른 사회주의국가와는 좀 다르겠지 하고 기대한 것과는 달리 비행기 내부나 공항의 시설부터 자동차 그리고 숙소시설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여행에는 항공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최측에서 부담하였으므로 남들이 겪은 고생은 안하였다. 교통, 숙소, 식사 모두 짜여진 계획에 따랐기 때문에 다소 융통성은 없었지만 불편한 점도 거의 없었다.

Niigata와 이곳 간의 항공편은 주 2회 뿐이어서 이들을 일찍 와서 주말을 이곳에서 지낼 수 있었다.

다음날 병원 1층의 식당에 마련된 특별Corner에서 아침을 들고 안내원(통역관)과 같이 시내 관광을 하였다. Amur강과 Ussuri강이 합류되는 바로 하류 광활한 벌판에 자리잡은 이도시는 인구 60~70만으로 각종 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시베리아 철도가 지나고 이 지역의 항공교통의 중심지라고 한다.

중·소국경을 이루고 있는 Amur강변, 이곳에는 17세기

중엽 러시아인들이 처음 이도시에 정착한 때의 유물, 중앙박물관, 전몰기념탑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시 중앙광장, 중앙시장등을 둘러보았다. 특히 시장내에는 국내에서 늘 듣던대로 사람들이 줄을 서거나 많이 붐비는데 비해 진열대의 물품은 거의 비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요일은 다음날 회의참석 준비관계로 오전중에는 숙소에서 머물고 오후에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어 중국대표 2명과 함께 이곳 방송국으로 갔다. 거기서 이번회의에 참가할 불란서 및 일본대표(이들은 다른 숙소 체류)와 합류하여 간단한 기자회견(물론 녹화도 포함)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영어는 전혀 쓰지도 않고 불란서 대표들은

## 소련의 시베리아 원동지역의

한국 전력공사  
전력경제연구소  
南 廷 一

전문 통역관을 내세웠고 주최측으로부터 이번 회의의 배경 설명, 각국 대표들의 자기나라의 에너지 및 원자력사업 현황을 소개하는 것으로 약 30분간 진행되었다.

### 3일간의 본회의

회의는 Amur강변 근처에 위치한 시 문화회관에서 4월 22~24일까지 3일간 계속되었다. 회의명칭은 "Atomic Energetics in Fuel-Energy Complex"이며, 주최는 "All-Union Scientific-Technological Society of Power Engineer and Electrotechnician"과 "Far-Eastern Scie-

# 민주적 지도력으로 이끌릴 때 강대국 재건설 틀림없어



ntific-Production Association Energy”, 蘇聯, 佛(10명), 日(3명), 中(2명), 韓(3명) 등 5개국이 참가했다.

시베리아 원동지역은 심각해져가는 전력(에너지)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의 건설을 다시 추진하여야 하는 절박한 실정인데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으로 소련국민들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불신은 깊어져가고 있다. 그러나 화석연료발전의 대량건설은 지리적, 경제적, 환경적 이유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므로 이미 정착되어가고 있던 고유 원자력기술을 안전성면에서 보완·개선하여 기술기반을 재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이해기반을 넓혀가야 한다. 그래서 인접 극동 3개국과 불란서등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협력'에 대한 과거 이순철 사무관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다음날 계속된 분야별 토의(제3분과: '원전건설과 사회여론')에서 필자가 'A Socio-Economic Role of Nuclear Power in the Republic of Korea'란 주제 발표를 하였다.

마지막 날은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4개주제의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오후에는 회의결과를 종합하는 것으로서 폐막되었다.

3일간의 회의를 통하여 특별히 느낀 점은 첫째 형식이 국제회의인데도 그 진행절차나 내용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공용어가 소련어였고, 통역은 4개국 각기 따로 통역을 준비시켜 대표들사이에 앉아 소근소근 주요 요점만을 설명하는 형식이었으며, 불란서는 참석자가 많아서인지 소련어 발표에 불어의 동시 통역형식으로 진행한 것은 대우의 형평을 도모해야 할 국제회의의 매너가 결여됐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어떤 회의에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자료집인데 이것이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고 소련어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표내용을 이해하기에 곤란을 겪었다.

특정국만을 우대한 본부석의 배치문제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필자는 다행히도 불어를 좀 이해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통한 불어 통역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주최측으로서도 동시통역을 준비하였는데 자신이 없어 취소하였다는 것이며, 소련이 대국이긴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어려운 형편으로 여의치 못 한듯 하였다.

## 주요도시를 돌아보고



는 나라들의 대표를 초청하여 각국의 원자력 추진배경과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교환을 시도하고 나아가서 가까운 장래에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원자력 정보센터(가칭)를 설립하려는데 이번 회의의 목적이 있었다.

첫째날은 개회식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하여 10여개에 달하는 주제가 발표되었는데, 2/3는 소련대표들의 발표로서 원전운전, 건설, 경험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새세대 원전개념인 'B-407'에 대한 발표가 관심을 끌었다.

다음 불란서에서 세계 원전개발전망과 환경에 대한 2개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일본측에서 원전건설상의 내진문제에 대한 발표에 이어 한국에서 '동남아지역에서의 원자력지역

### 원동지역 주요도시 순방

3일간의 본회의를 마치고 4월 25일 일찍 5일간 예정으로 Okhotsk海 주변 주요도시의 순방회의 길에 올랐다.

일행은 약 30명으로 소련측의 회의 참석자 및 관계자가 반정도, 외국참석자가 나머지 반정도였다.

Khabarovsk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비행기는 Aeroflot사 비행기였는데 내부가 화물기였기 때문에 의자도 양면창측으

로 옆으로 놓여진 긴 프라스틱제인데다 안전장치가 허술하여 마치 군트럭에 포장을 친 격이었다. 비행기출입도 차라리 상륙용 선박같이 생긴 후미쪽의 수동조작식 램프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할 정도였다.

처음 방문지는 연해주 한·소국경근처에 있는 Vladivostok이었다. 북한의 웅기와는 40Km가 좀 넘는 가까운 거리이다. 항구도시인지라 아름다웠으며 천연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시민회관같은 곳에 안내되어 들어가보니 미리 100여명의 이곳 에너지 및 언론관련기관에서 온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곧이어 각국대표들은 통역과 함께 단상에 마련된 좌석으로 안내되어 세미나식 회의를 했다.

소련 주최대표의 방문목적과 앞으로 소련의 원동지역의 에너지문제해결의 어려운 점등을 설명한 다음 각국대표들은 자기나라의 원자력 개발경험과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특히 '안전성'과 '대민홍보'를 중심으로 소개한 다음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약 2시간의 회의를 가졌다.

통일이된 상태라면 자동차로 불과 30분이면 갈 수 있는 우리땅이 지척에 있건만 또한 그토록 오랜기간 단절되었던 이들과의 관계도 빨리 이어지려면 남북통일이 하루빨리 성취되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회의후 간단한 시내 Tour를 마치고 그날 저녁으로 다음 목적지인 Juzno Sahalinsk로 비행하였다. 이곳에서도 거의 같은 일정이었으며 다만 이곳 TV방송국에서 약 30분간의 생방송에 참가한 것이 기억될 일이라 하겠다.

시내관광도중 국내에서 가끔 TV를 통해 보았던 우리 교포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시장터에 가볼 기회가 있었다. 할머니, 아주머니, 아저씨등 많은 교포들이 노점상 비슷하게 차려놓고 장사하고 있었는데 같은 동포로서 강대국간의 전쟁의 희생 대상이되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에서 진한 동포애를 느꼈다.

이날 저녁 다음 행선지인 Petropavlovsk Kamchatski로 비교적 긴 비행을 하였다.

'83년 9월 이 근처 어디에서 이들의 전투기에 의해 KAL 여객기가 무참히 격추된 사실이 피로한 중에도 腦裡를 스치면서 급변하는 국제관계의 무상함을 느끼게 했다.

이 곳에서는 정해진 일정대로 회의참석, TV출연, 시내관광등을 마치고 활화산을 구경하기 위하여 50Km정도 떨어진



시외로 안내되었다. 이곳은 화산이 많이 있으며 한편 여러곳에 온천도 있기 때문에 특히 고급간부들의 휴양지로 애용되고 있다고 한다.

오는 길에 잠시나마 노천 온천에서 목욕을 한 다음 이곳 지방음식으로 만찬을 즐겼던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곳에서 하루 밤을 더 지내고 4월 28일 새벽에는 Okhotsk海 북단에 있는 요충지 Magadan으로 향하였다.

원래 예정된 이곳에서의 스케줄은 사정에 의해 취소되고 다만 비행기 급유를 위해 2시간 정도 체류한 다음 바로 최종 목적지인 Bilibino로 비행하였다. 북위 70도 근처의 Tundra지대에 위치한 이곳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경이었다. 적은 도시이며 이곳에는 대규모의 주석광을 비롯해 광물자원이 산재해 있는데 기후, 지리적이유로 화석연료발전소에 의한 전력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을 공급함과 동시에 열병합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주로 광산종사자)들에게 열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4년에 처음 12Mwe 원자로가 가동된후 '76년 4호기가 준공되어 총 48Mwe로서 20여년간을 아무 사고없이 운전해 왔다고 한다.

이곳 여건하에서는 매우 적합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공급 방식이긴 했으나 1시간이란 짧은 발전소 방문을 통해 느낀 것은 설비개념의 현실적 우월성에 못지않게 발전소 종업원들의 근무환경이 향상돼야하고 의식구조도 안전성을 중시하는 자유세계의 그것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느꼈다.

마침 4월 26일은 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5주년이 되는 날이었으며 여러가지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곳 원자로의 형식도 RBMK란 점에서 어쩐지 걱정이 되었다.

또한 추운지방만큼 원자력의 열병합개념의 도입이 바람직한 것 같고 이런 장점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매력적인 개념인가를 생각하게 하였다.

참으로 와보기 힘든 이곳에서 불과 4~5시간의 오후를

보내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아쉬움을 안은채 일행중의 귀국 비행기 사정때문에 밤 늦게 Khabardvsk를 향해 통털어 9000Km에 달하는 지루한 마지막코스에 올랐다.

여행기간동안 서먹서먹했던 소련인들과 Vodka와 Cognac에다 치즈와 오이를 안주로 교분을 나눔으로써 그들의 대부분은 소탈하고 순박한 면이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만 오랜 정치적 수난과 극심한 기후변화에의 적응을 위해 노력하다보니 소련인하면 '크레몰린' 형으로 치부되곤 하는 애매한 인상을 받아오게 아닌가 생각되었다.

### 국제 원자력정보센터(가칭)설립 구상

절박한 시베리아 원동지역의 전력난을 해결하여야 할 소련의 에너지관계 전문가들에게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기반조성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인 듯 보였다.

풍부한 화석연료의 개발에는 경제적으로 타당한 개발규모를 뒷받침할 수요확보와 막대한 시설투자가 해결되어야 하는 반면 원자력의 경우는 적어도 우선은 고유원전기술에 대한 '안전성' 보안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재정비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르노빌사고이후 국민들의 심화된 불안감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 소련당국의 고민이라고 본다.

특히 원동지역에는 이미 2개의 원자력건설계획이 추진중이었기 때문에 관련기초업무는 상당히 진전된 상태가 아닌가 짐작되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해기반을 확보하는 동안 그들이 총력을 쏟고 있는 기술적 '안전성' 개념의 보장이 빠른 시일내에 실현된다면 적어도 금세기말까지는 이 지역에도 원자력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민홍보'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



에 이번회의 참가국들과 원자력에 관한 많은 경험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관하여 보다 직접적인 정보교환수단으로 Khabarovsk에 공동운영형식의 정보센터를 설립하고자 적극적인 구상안을 제시하여 참가국대표들의 원칙적인 찬성을 얻어내기까지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정부 및 원자력 관련기관간의 협의하에 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며 기관별 역할이 분담되어 통합된 대·소지원협력체계가 이룩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지역 국가간의 원자력 협력체계의 구축은 각기 상이한 배경과 기술에 의하여 다양하고 대규모적으로 원자력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분야에서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앞으로의 비람

소련의 개방 민주화정책의 급속한 진전과 그동안 단절되던 한·소관계의 재개는 우리들의 지나치게 성급한 호기심과 의욕때문에 자칫 충분한 정보자료와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채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됨으로써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비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지?

소련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과거가 체제상의 비능률이 극한점에 달해 새로운 개혁을 걷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각분야에서 고유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각종 자원을 풍부히 소유하며, 1만불 정도의 국민소득을 갖는 잠재력이 강한 나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그들은 오랜기간 동안 정치적 수난과 가혹한 기후조건하에서 단련되어 인내할 줄 아는 성격을 가진 국민들이라고 본다면 일단 국가적 지도력이 민주적으로 강력히 대두될 때는 새로운 모습의 강대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원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북방정책의 원칙하에서 상호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바탕위에 신중하고도 통합된 정책추진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우리도 북쪽으로 눈을 돌리고 발을 뻗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하에서 우리의 상대가 될 소련국민들이 하루 빨리 그들이 겪고 있는 국내외적 수난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